

# 스쿨넷(SchoolNet) 200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한국교육정보방송학회, 한국교육공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교육학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등 5개 교육정보화 관련학회가 주최하는 「스쿨넷2000 학술세미나 및 전시회」가 지난 8월 4일부터 이틀간 부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스쿨넷'은 초·중등 학교에서 인터넷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국내(SchoolNet) 또는 국외(ICCE)교육정보화 관련 교사와 학생, 전문가, 기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교육의 접목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상호간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학술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많은 관계자들은 "각급 교육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기법과 교수방법 소개는 물론 국외 전문가들로부터 선진경험 및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참가평을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변재일 실장이 발표한 '인터넷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화 정책 방향' 논문을 요약해서 실는다. <편집자 주>

## 인터넷 시대에 대응하는 정보화 정책 방향

###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

#### ① 전자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 준직접민주주의)

인터넷을 통한 가상토론 활성화, 입법·의정·선거활동 정보공개 및 평가(포스닥) 등

#### ② 소비자 주권의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기업경영 가속화

전 세계의 상품을 값싸고 손쉽게 안방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를 촉진시켜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간의 제휴, 합병이 활발해 진다.

※ 예 : AOL과 타임워너(인터넷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 합병, GM, 포드, 크라이슬러 3사의 제휴 등

#### ③ 인터넷 신문·방송 확산

맞춤뉴스와 맞춤형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제공하고, 특화된 주제·관심뉴스에 대한 심층보도가 가능해진다.

#### ④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기존 대학의 네트워크화,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체계 강화, 사이버 대학 등으로 최고의 교수만이 생존할 수 있으며, 지역, 정원, 연령, 학교 파괴가 일어난다.

※ 미국 NTU(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는 50개 회원대학을 온라인으로 연결, 정규적인 학·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이다.

### 정보화를 통한 국가운영의 기본 틀 혁신

지난 2년간 전자서명법 등 39개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금년에 공공정보 공개, 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22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법·제도 환경을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게 정비했다. 인터넷 확산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를 활용, 인터넷의 경제·산업, 고용, 정치,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과급효과를 분석·연구하여 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등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노동·복지·물류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의 정보화 및 IDC, ASP 등의 육성을 통한 민간부문 정보화 촉진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당초 2002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초고속정보통신 기간망 구축을 금년 내에 조기 완료하고, 2010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3단계 계획을 2005년까지 조기 집행한다.

인터넷 장비공급을 대폭 늘려서 금년 상반기까지 인터넷 즉시 가설체제를 완비하고, 금년 중 200만 가구 이상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99년말 37만가구 → 금년 5월 현재 113만 가구)하는 한편 벤처기업 밀집 지역, 전국 400여개 산업단지 등 초고속통신 수요가 큰 지역의 인터넷환경을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조성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망의 국제 연동체제를 강화하고, 소통능력을 4배(1.2Gbps→5Gbps)로 향상시키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평가와 리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아시아 인터넷 비즈니스의 Hub화 추진

한국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 네트워크, 자금, 전문인력 등을 중



합적으로 지원하여 2003년까지 아시아 인터넷 비즈니스의 허브(Hub)로 육성한다. 또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연동 확대, IDC·ASP 활성화 등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산업 육성과 금융·세제·법제도 등에서 최적의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 주요도시에 IDC(서버호텔)를 설치하고 인터넷 기업과 연결하는 디지털 공단 조성

###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금년 6월부터 전국 196개 읍 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면 단위지역까지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금년 중 도서벽지 우체국, 보건소 등에 위성인터넷플라자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02년까지 전국 우체국에 정보화교육장 100개소 설치·운영한다.

장애인, 여성, 노인 및 4,50대 직장인, 금년 3월부터 실시중인 100만 주부 인터넷교육을 20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1,000만명 정보화 교육 실시 등 정보화 교육\*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정보기기 사용 편의를 위하여 음성 웹브라우저, 실시간 자동 자막처리 기술, 장애인용 키보드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

※ 지난 4월 6일 대통령 주재로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제4차 정보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 정보화 역기능에 적극 대처

해킹, 바이러스 등 주요 기반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에 적극 대응하여, 암호이용촉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118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기술지원, 사이버 공간상의 해킹대응 훈련장을 통해 '10만 사이버 방위군'을 양성한다.

음란물 유통, 개인정보 오·남용 등 정보 이용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 및 청소년 대상 우수사이트에 대한 '그린 마크' 제도 도입,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4.11일)하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수집제한 정보 및 기술적 조치 등을 권고(금년 6.1일 시행)한다.

※ 7. 12 대통령 주재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범부처적 대응전략 마련

### 우리의 기회와 도전

급변하는 인터넷 시대의 번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 정보의 축적·유통·활용에 의존하므로, 개인·기업·국가의 모든 경제주체는 창조적 자기파괴를 통한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적응 노력이 필수적이다.

높은 교육열, 창조적 문화전통,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적합한 주거 문화 등 인터넷 시대의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21세기 인터넷 시대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